

광주교육연구원, 교원 대상 문화예술 현장 연수



광주교육연구원이 지난 18일 '문화예술 현장 탐방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사진> 문화예술 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연수는 양립동 골목 미술관 여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원들은 인공지능을 인문·철학·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워크숍과 인공지능

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연극 '지정(Self-Designation)' 관람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리터러시도 함께 키울 수 있었다. 윤리중 정화희 교사는 "AI에 대해 다각적으로 통찰할 수 있었던 시간이 뜻깊었다"며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수단으로서가 아닌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국무총리상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등 4개 부문에서 570여개의 과제를 출품해 경쟁했다. 한전은 공공기관 부문에서 전력인프라를 활

용해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재난대응 기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시스템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문기관으로 참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핵심과제로 선정돼 경북, 충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25개소에 시범적으로 설비를 구축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자선단체에 1조원 기부



올해 93세인 '투자의 귀재' 버핏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워런 버핏(사진)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의 주식 약 8억6600만달러(1조1000억원)어치를 가족 자선단체 4곳에 추가로 기부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크셔는 버핏이 자사 클래스 B 주식 150만주를 수천 톨프슨 버핏 재단에 기부했다고 공시했다. 이 재단은 2004년 세상을 떠난 아내 이름을 따오며, 출산 건강 관련 지원활동을 한다. 또 3명의 자녀가 기아 퇴치, 분쟁 완화, 소년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단에도 각각 주식 30만주씩 모두 90만주를 전달했다. 버핏은 지난해 이맘때에도 이들 재단에 버크셔 주식 7억5900만달러(9800억원)어치를 내놓은 바 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편지가 보내 재산 99%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면서, 자녀들은 자신의 유언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버핏은 재산이 1205억달러(162조원)로 세계 5위의 부자다. /연합뉴스

행인학당 양희석 명예 교수 '노자 도덕경' 강좌 성료



양희석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가 진행한 행인학당(行人學堂) 동양고전 인문프로그램인 '노자 도덕경' 강좌가 마무리됐다. <사진> 이번 노자 강좌는 상·하반기로 나눠 20~70대 시민들과 노자 '도경'(道經·1~37장)과 '덕경'(德經·38~81장)을 강독했으며 강좌는 유튜브 '행인학당 노자강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중국학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동양학자 양희석 교수는 지난 2022년 정년 퇴임한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자'와 '장자' 등을 강독하는 '행인학당 동양고전 강좌'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

김응기·서경배 회장 '세계 200대 컬렉터' 포함

미국의 미술전문지 '아트뉴스'가 선정한 세계 200대 컬렉터(미술품 수집가)에 김응기 글로벌세아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 22일 아트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과 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은 2019년 크리스티 홍콩경매에서 김환기의 '우주 5-IV-71 #200'을 당시 환율로 약 131억8750만원(구매 수수료 미포함)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회장은 현대미술뿐 아니라 한국 전통 미술품 등도 소장하고 있다. 200대 컬렉터 중에는 미국 컬렉터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12명), 스위스(11명), 홍콩(8명), 독일(6명), 대만, 중국(각 5명), 싱가포르(4명) 등 순이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여전히 미술 시장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에 있지만 그 뒤를 따



르는 홍콩과 중국 컬렉터들도 큰 손을 자랑하고 있다"며 "대만과 싱가포르 컬렉터의 약진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립목포대 홍석호 교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도시지역개발학과 홍석호(사진) 교수가 지난 17일 열린 '2023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는 2001년 설립된 단체로 매년 생태환경건축분야 학문과 기술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선정

해 시상하고 있다. 학술상은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낳은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대표 상훈이다. 홍 교수는 그동안 생태적 산지전용 등 도시건축 분야 연구에서 실무와 연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생태도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힘내라 소상공인 농특산물 박람회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빠이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인간: 신세계로부터	00 고려 거러 전정(재)	15 푸르기 식자교실 45 다이노맨2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5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재) 35 스튜디오 K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연인 파트2(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국민사형투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인간: 신세계로부터(재)	10 우아한 제국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 2 1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도시의 기록(재) 50 인간: 신세계로부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보물지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우어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특집 모두의 안전 모두가 안전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제국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총감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서치:미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전 국민 힐링쇼 -푸바오와 할부지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5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런던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50 네모세모(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레인보우 버블잼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인간과 바다(재)
07:30 엄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타이완이 좋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0 한국기행
08:50 레인보우 버블잼	16:40 당동명 유치원(재)	-가을 채우다 4부 바다의 곳간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퍼 피그	21:55 귀하신 몸(재)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토패밀리 쇼츠	-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음 10월 11일 乙酉) ☎ 010-9790-8237

<p>36년생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48년생 원님 덕에 나팔 불게 되리라. 60년생 충분한 의사 타진이 선행되어야 폐해가 따르지 않는다. 72년생 괜히 굽어서 부스럼 낼 것까지는 없으니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84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96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65</p>	<p>42년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54년생 목적이 부합하는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느니라. 66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78년생 예상 밖의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공허해지는 운세이다. 90년생 기회를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위상을 제고시키기에 충분하다. 02년생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다. 행운의 숫자 : 40, 86</p>
<p>37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년생 세부적으로 임해야만 무탈하리라. 61년생 부진함을 만회할 수 있는 상승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73년생 제반 사항을 아우르며 매끄럽게 도모한다면 실속이 있을 것이다. 85년생 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방치하리라. 97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6, 74</p>	<p>43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 없다. 55년생 먼 밀히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 것이다. 67년생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9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91년생 지나치다면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03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43, 68</p>
<p>38년생 가끔씩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상책이다. 50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62년생 심체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맞다. 74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86년생 표면의 현상을 역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98년생 너무 가까이하면 때가 묻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라. 행운의 숫자 : 12, 53</p>	<p>44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56년생 실수한다면 주변인에게까지 피해가 가리라. 68년생 중국 쪽으로는 해결점이 이르게 될 것이다. 80년생 항상 변수가 숨어 있는 법이니 쉽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92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04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보전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87</p>
<p>39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51년생 차원을 달리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옳다. 63년생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친다. 75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87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를 수밖에 없다. 99년생 우선 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90</p>	<p>45년생 실력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채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느니라. 57년생 외형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낙수물도 반박되면 맛들을 훑는 법이다. 81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오류가 보인다. 93년생 기초가 되는 저변을 파악해 보는 것이 옳다. 05년생 격에 맞아야만 쓸모 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0, 76</p>
<p>40년생 열린 마음이 많은 기회를 담보하리라. 52년생 견인볼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64년생 상호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76년생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앞에 서있는 형국이다. 88년생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변경해도 무난하다. 00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4, 63</p>	<p>34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로다. 46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58년생 천재일우의 기회가 나타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70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참됨이 상서로움을 부를 것이다. 82년생 변화를 추구한다면 발전되는 양상을 띤다. 94년생 균형을 잃었거나 확립적이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7, 69</p>
<p>41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5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65년생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 버리게 생겼다. 77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89년생 발원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때가 가다. 01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36, 60</p>	<p>35년생 사사라도 고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 있다. 47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59년생 풍부한 식견과 다각적인 고찰이 절실하다. 71년생 눈앞의 답답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근면함이 복을 부르리라. 9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행운의 숫자 : 06, 57</p>